佛法 담은 미술로 지친 대중 위로

한얼우리그림협회 특별전 '卍卍展'

하동 칠불사 9월 10일~11월 30일

부처님 가르침 의미 풀이한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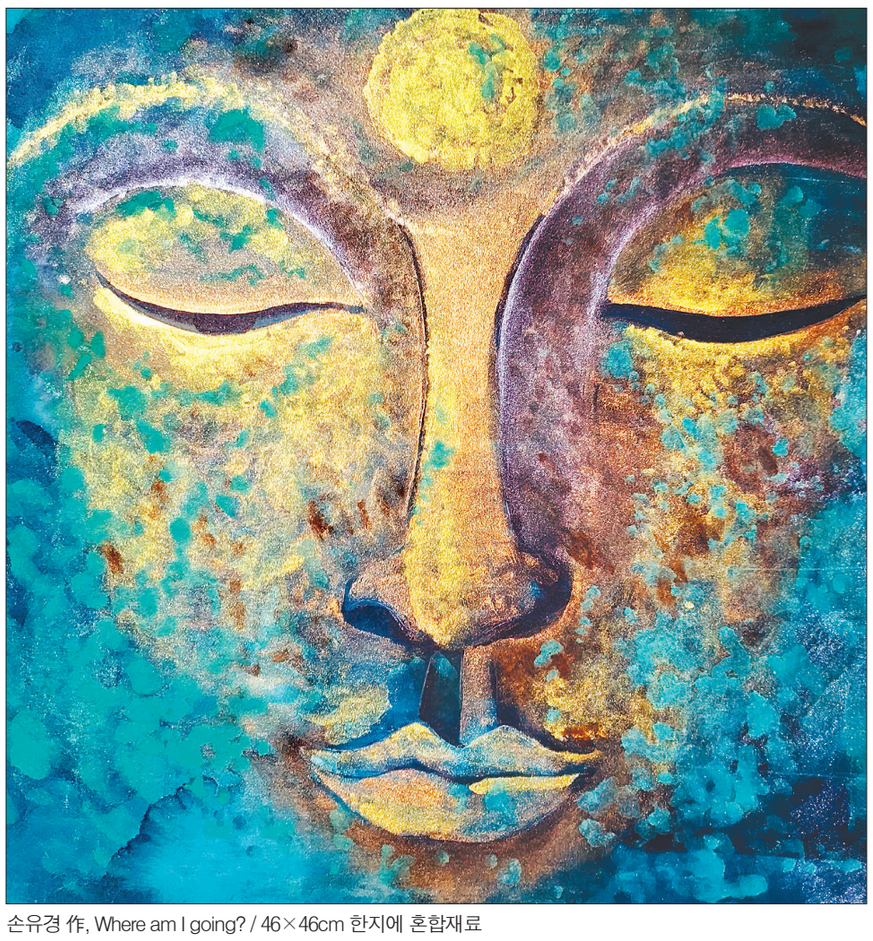
조각·회화·사진 등 54점 선보여

코로나 종식·평안 염원 메시지도

우리미술 해외 널리 알리기 위해

'소천민화협회' 모태 2019년 창립

2022년 프랑스 전시도 개최 예정



손유경 作, Where am I going? / 46×46cm 한지에 혼합재료



김선희 作, 삼신삼세불도 / 116×132cm 비단에 채색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한국의 얼이 담긴 미술을 추구하는 한얼우리그림협회(회장 손유경)가 9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남 하동 칠불사(주지 도응) 보설루에서 특별전 '卍卍展'을 개최한다.

한얼우리그림협회의 세 번째 회원전인 이번 전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불교를 주제로 하고 있다. 한얼우리그림협회 회원 중 27명의 작가들이 조각, 회화, 사진 등 다양한 장르에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 은혜, 소망이라는 주제로 작업한 다양한 기법의 작품 54점을 선보인다.

한얼우리그림협회가 주최하고 칠불사가 주관하는 이번 '卍卍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미술 속에 담아 코로나로 지친 대중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卍'자는 길상(吉祥)의 징표를 나타내는 문자로, 전시의 제목에서부터 힘겨운 시절의 종식과 평안의 시대를 염원하는 메시지를 볼 수 있다.

한얼우리그림협회 손유경 회장은 "코로나 시대에서, 인간의 존재성에 대한 물음을 부처님 가르침의 의미를 풀이한 작품을 통하여, 관람하시는 모든 분들이 고집멸도 사성제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염원한다"고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딸아이가 고3이 되면서 자연스레 절에 다니게 됐다. 나 자신을 한 번쯤 뒤돌아 볼 수 있는 여유와 힘들고 지칠 때 나에게 편안한 휴식처가 되는 절. 주제를 정함에 있어 주저 없이 '연(꽃)'을 선택했다. 살랑살랑 춤을 추는 연잎에 미소 지으며 염원과 기도라는 테마로 연을 그려보았다."

김미경 작가는 작품 '기도'와 '도약'에서 분채와 봉채, 먹을 사용해 연꽃을 그렸다. 연잎 위에는 합장한 동자승이 숨은 그림처럼 앉아있다.

연꽃은 그 외 많은 작가의 작품에서도 등장한다. "어지러운 영혼을 맑게 씻어주는 연꽃 / 척박한 진흙탕 환경에서도 아름다움으로 / 예쁘게 꽃을 피워 우리 삶의 공간에서 / 마음과 영혼의 내면을 행복하게 치유해주고 / 그 도도함과 청정함을 잃지 않는다." 사진가 손기환은 연꽃을 찍은 사진작품 '여름날의 흔적', '연꽃 사랑'에서 중첩 기법을 이용한 추상적 이미지로 연꽃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행복한 모습의 동자승은 부처님의 자비로움과 여유 있는 미소를 표현하고자 하였고, 더불어 쌈지와 골무를 통해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표현했다." 김인영 작가의 동자승과 연꽃을 소재로 한 '자비 1'과 '자비2'는 한 편의 동화를 보는 듯하다.

안옥희 작가 역시 연꽃을 주제로 받았다. 한지나 비단이 아닌 캔버스에 아크릴물감으로 그린 안 작가의 연꽃('무의식 속의 추억 1, 2')은 동양적인 화풍과는 다른 디테일과 입체감을 보여준다.

이수빈 작가가 순지에 분채와 봉채, 먹을 이용해 그린 '연화도 1, 2'는 장식성과 상징성이 잘 드러난다.

회장 손유경 작가는 부처님의 상호를 현대적 이미지로 해석했다. 부처님을 종교적 의미 너머에서 바라본다. "우리 살아가는 길 중간에 나는 어느 어두운 숲 속에 서 있었네. 곧은 길이 사라져 버렸기에." 미술과 예술의 소재와 주제로 재해석된 손유경의 부처님은 신앙의 대상을 넘어 미학으로 확장되고 예술로서 대중을 위로한다.

현대적 불화를 그려오고 있는 김선희 작가의 '삼신삼세불도'는 형식적으로는 오불회도이고, 내용적으로는 삼신삼세불도라고 할 수 있다. 상단에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석가불과 노사나불의 삼신불을 그리고, 하단에는 약사와 아미타불을 배치하여 2단 구도를 이루고 있다. 즉, 상단은 삼신불, 하단은 삼세불을 한 화면에 복합적으로 담고 있다. 법신·보신·화신의 삼신불과 과거·현대·미래의 삼세불을 한 화면 안에 담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우리의 얼과 불교를 담은 많은 작품들이 대중을 기다린다. 경전 속의 부처님 말씀을 미술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번 전시를 주관하는 칠불사 주지 도응 스님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혼과 얼이 담겨있는 작품을 추구하는 작가들의 단체인 한얼우리그림협회와 인연이 되어, 불교적 신심과 뛰어난 실력을 갖춘 분들의 작품을 칠불사에 모시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코로나로 움츠린 예술 활동이 저희 칠불사로 인해 화려한 지리산 단풍처럼 깨어나고, 이번 만만전이 성공적인 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에서 밝혔다.

한얼우리그림협회는 2019년 손유경 회장이 우리의 혼과 얼이 담긴 작품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창립했다. 2007년 손유경 회장과 문하생의 전시를 시작으로 만들어진 '소천민화협회'가 한얼우리그림협회의 모태다.

그 후 9회에 걸쳐 회원전을 열었으며, 프랑스 등 해외 전시를 통해 우리 민화를 알리고자 했던 손유경 회장은 우리의 전통적인 미술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는 신념으로 한얼우리그림협회를 창립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해 2020년 해외 전시와 협회전이 취소됐다. 2021년에는 회원전과 만만전, 수원 뉴텍갤러리에서 전시를 개최하고, 2022년에는 취소되었던 프랑스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한얼우리그림협회 회원은 150명이다.

이번 전시를 주관하는 칠불사(경남 하동군)는 지리산 해발고도 830m 토끼봉에 자리한 사찰이다. 가락국 김수로왕의 일곱 왕자가 지금의 칠불사 자리에 암자를 짓고 수행했고 6년 만에 성불했다고 한다. 전시 문의 (055)883-1869

'卍卍展' 참여 작가와 출품작

△고재봉 / 그리움 하나 · 삶의 향기
△김미경 / 기도 · 도약
△김선희 / 삼신삼세불도 · 수월관음도 外
△김인영 / 자비1(mercy 1) · 자비2(mercy 2)
△김중기 /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 2점
△민태연 / 바람 불던 날 2점
△박현주 / 연화도 2점
△석지연 / 나비 동자 · 봄나들이 동자
△손기환 /여름날의 흔적 · 연꽃 사랑
△손유경 / Where am I going? 2점
△안옥희 / 무의식 속의 추억1, 2
△양상웅 / 진해 천자암 산신각 2점
△유영희 / 힐링포인트 · 극락선과
△엄혜란 / 물고기 노닐다 1, 2
△여명 / 달마도 · 관음도
△유희순 / 주악비천상 · 달항아리(우주)
△이수빈 / 연화도1, 2
△이수환 / 불탑과 장독대 · 희망
△이정숙 / 좋은 인연 · 연꽃
△이한길 / 달을 품다 2점
△이희순 / 처염상정 ·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임효선 / 慈悲(자비) · 용솟음
△장석운 / 정도 · 진인사 대천명
△정영모 / A Story of Home Town · 히말라야 봄봄봄
△최소윤 / 동경(憧憬)하다 5 · New World 2
△최옥희 / 백복도 · 연화도
△최종윤 / 신묘장구대다라니 · 능화판(덩쿨연)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대아미타사(경주), 주천사(고양시), 전국 캠핑장 캠핑 트레일러에 설치, 경인아라뱃길, 가평자라섬, 대부도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전국 600군데 설치 사용중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www.garden-heating.com 문의 010-3267-1263

복을 가져다 주는 행운의 말발굽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사람도 재운이 있어야 돈도 벌고 명예도 얻습니다. 그러기에 금전운을 키워야 합니다.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도와주는 것이 있었으면 할 때 말발굽을 소장해 보세요. 말(馬)은 원래 서양 속담에 "말굽을 발견하면 행운이 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을 밟고 지나가지 않는 습성이 있어, 예로부터 액운을 막고 복을 가져다주는 상징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없던 복도 굴러 들어오고, 재산을 모으고, 장애물을 쉽게 넘어갑니다. (모든 일이 술술 뜻대로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들어온 복을 지켜주며, 선물용으로도 좋고 장식용으로도 좋습니다.
30만원 사이즈 54X47X5cm
20만원 사이즈 49X34X5cm
11만원 사이즈 35X35X5cm
●초진재보란?
재물에 욕심을 부리면 재물이 피해 가지만 재물을 사랑하고 초대하면 재물이 저절로 들어온단 뜻입니다.
*말(馬)이 실제로 사용한 굽이여서 모양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가좌로 248 유튜브 "유명표구사" 검색
유명액자만물 Tel. 010-3308-6986
※ 전국택배 됩니다.
기업은행 041-002694-03-016 이종부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民衆醫術)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